

# “그동안 헛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글 유인중 편집부 / 사진제공 월계종합사회복지관



2019년 봄, 서울 10개 복지관의 한부모 자조모임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한가족 캠프. 6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자조모임 공동발표회 모습(왼쪽부터).

서울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이하 월계복지관)에는 2003년 만들어진 ‘징검다리’라는 모임이 있다. 이혼 뒤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30~50대 ‘싱글맘’ 11명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이다. 여기서 리더 역할을 하는 A씨(54)는 2019년 3월부터 서울의 성산·은평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강연을 다녔다. 각 복지관의 자조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강연을 들은 회원들로부터 “아이들을 잘 기르고, 모임도 원만하게 이끌어오다니 대단하다”는 응원과 지지를 받아 A씨 마음속에는 ‘그동안 아이 둘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헛산 건 아니구나’라는 자부심이 움텄다.

이혼한 한부모 여성들은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고, 자녀 양육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곤란을 겪는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싱글맘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월계복지관은 2018년 아산재단의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신청해 선정되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했다. 자조모임이 있는 복지관들은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없는 곳은 결성을 유도하는 한편 복지관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는 월계복지관을 중심으로 신원·정릉·금천누리복지관 등 서울의 10개 복지관이

참여했다.

지역별 자조모임을 연결하기 위한 연합활동으로는 ‘한가족 캠프’를 개최했다. 2019년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 춘천의 펜션에서 1박2일로 열린 캠프에는 자조모임 회원 71명과 가족 44명, 실무자 15명 등 130명이 참석했다. 캠프파이어와 모터보트 타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어머니들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아이들도 오빠와 형, 동생이 생겨 마냥 즐거운 모습이었다. 6월15일에는 서울 여의도의 이룸센터에서 회원 56명과 실무자 2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조모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 중 일부는 앞의 A씨처럼 소정의 강사료를 받고 다른 복지관에 가서 자신의 특성에 맞는 강연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월계복지관의 이지연(48) 과장은 “연합활동을 자주 하면서 자조모임들끼리 자극을 주고받는 등 네트워크가 잘 형성됐다. 실무자들도 서로 조언해주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도록 지원해준 아산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월계복지관은 1993년 개관했으며, 20여 명의 직원이 아동·청소년과 성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